

■ [주]나농 황금석 대표이사

육계업과 인연을 맺은 것이 큰 기쁨



‘육계를 사랑하는 사람’,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사람’… 지난 70년대 초부터 육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주)나농 황금석 사장(63세)은 지금도 배합사료회사를 경영하면서 온통 관심은 육계사업 쪽에 쏠려있다. (주)나농의 계열사인 국내 최상위권의 닭고기 전문업체인 (주)동우가 육계계열화업체로서 정상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황 사장은 오늘도 고효율의 육계사료를 생산해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황 사장은 사람과의 관계 또한 그 어떤 일 보다도 중요시 한다. 지난 2007년 4월 지금의 (주)나농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회사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였다. 전 직원이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 결과 나농은 이직률이 적은 회사로도 유명하다. 황 사장은 또 자신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도 말한다.

전북 김제가 고향인 황 사장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ROTC 11기로 수의 업무로 군 생활을 마쳤으며, 일년간 동물병원을 경영한 경력도 있다. 1977년도에 (주)미원에 입사하여 천안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서 영업총괄 부장과 사업부장을 역임하는 등 줄곧 영업분야에서 활동해온 그는 1997년 현 (주)나농의 전신인 (주)화성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황 사장은 계열사인 (주)동우에서도 약 3년여 동안 육계계열화사업의 사육담당 업무를 거치며, 지난 2007년 4월 지금의 (주)나농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다음은 황금석 사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Q 우선 (주)나농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주)나농은 지난 1978년 전신인 (주)화성산업으로 태동하여 1980년 익산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해오다가 2007년 4월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명을 지금의 (주)나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확장으로 익산공장으로써는 원활한 제품공급에 한계를 느껴 2008년 8월에 지금의 군산 새만금지역의 국가산업단지내에 최신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주요설비를 유럽의 최신 설비로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는 사료업의 긴 역사를 가진 회사로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능력 640톤 규모의 우리 나농은 전체 물량의 약 80%를 계열사인 동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Q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영이념은?

A 조직원들이 재미있는 일터가 되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최종 소비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가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하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큰 숲을 이루 듯 직원들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힘을 한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각자의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가지며, 직원들 간의 소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무실을 개방하여 수시로 직원들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직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함께 걱정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마음을 달래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믿음을 줍니다.

특히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제품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저는 직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고자 취임 이후 제 사무실에 냉난방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세계 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견해는?

A 최근 미국 등 전 세계의 곡창지대가 극심한 가뭄으로 커터란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수확량이 25~30%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한달 사이 옥수수 값과 밀 값이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에서 옥수수는 50%정도 급등하였고, 밀 값은 40%가 폭등하는 등 이미 급등한 대두 값과 더불어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축산·사료산업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기후 변화의 대자연속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사료곡물원료시장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옥수수 사용량 중 90% 가량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미국이 '바이오 에탄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40% 수준인 1억톤 이상의 옥수수를 연료용 에탄올 제조에 사용하고 있고 의무사용 비율까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탄올에 사용되는 옥수수 사용량을 재검토해 준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옥수수를 비롯한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취임 이래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은?

A 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 쑥스럽긴 합니다만 일복이 많아 공장이 쉼 없이 가동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취임하여 전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일상의 많은 시간들을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직장의 선·후배, 동료는 가족과 같으며,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직장이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즐거운 일터에서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좋은 품질로 이어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에게는 믿음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육계계열화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동우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주)나농은 계열사의 성장과 더불어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도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육계산업에 대한 전망은?

A 최근 여름철 성수기 닭 값의 흐름을 보면 하반기 육계산업이 어두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사료생산실적으로 볼 때 공급과잉이 있었음을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하림, 동우, 체리부로, 올팜, 마니커 등 기존 업체에 이지바이오, 사조 등이 육계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본 타겟이 커짐으로 시장에서의 종계 및 사육수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상반기 냉동 닭고기 수입의 증가(23%), 2011년도 냉동 비축량 증가로 공급이 증대되었고, 경기 침체로 닭고기 수요

가 감소되면서 닭고기 축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업체 종사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신뢰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사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소망은?

A 제가 축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7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계와 관계를 맺은 것은 저의 의도가 아닌 하느님의 섭리인 것 같았습니다. 군복무 중 처음으로 육계가 군에 일부 납품되어 접하게 되었으며, 영업활동 중 발생된 분실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지인의 권유로 육계 1만수를 6년 동안 사육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사료회사 영업에서도 많은 육계농가와 육계업체들에 사료공급을 하고 사업에 협력하고 육계 계열화사업의 사료를 담당하는 등 육계산업과 평생 인연을 하고 있습니다.

육계계열화사업에 한가지 바람은 현재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 중 동료(평가그룹)의 좋은 성적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거꾸로 동료의 좋은 성적이 나의 소득이 증가되는 방법으로 전환되었으면 합니다.

나농사료는 동우에 전체 물량의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우는 부안에 6만평 규모위에 건평 2만3천평의 약 1,900억원을 들여 웰빙을 생각하는 도계 및 육가공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료를 저희 나농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동우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영업은 상호 신뢰하는 실수요자에게만 공

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사료를 제공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참프레의 원활한 가동으로 인해 사료공장이 1개 더 증설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세계의 축인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한국 육계산업에서의 동우의 포지션이 동종업계에서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 가도록 경쟁력 있는 사료를 공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업장을 통해 육계산업의 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영자로 남고 싶습니다.

Q 사장님의 생활신조는?

A 평소의 생활신조는 신뢰와 배려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매사를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대화, 소통이 되는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속도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쌓아가고 있는 모순과 위기구조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신을 낳게 하고 많은 사람을 실적 중심과 개인주의 성향에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길을 잘 못 든 사람이 걸음을 재촉하는 법”이듯 무엇인가에 쫓기어 사는 사회 환경에서 소통과 신뢰가 부족하고 배려는 찾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즐거운 사업장에서 또한 농장에서 즐겁게 일 할 수 있다면 모든 결과는 좋아질 것입니다. ☞

〈글·사진 권영길 차장〉